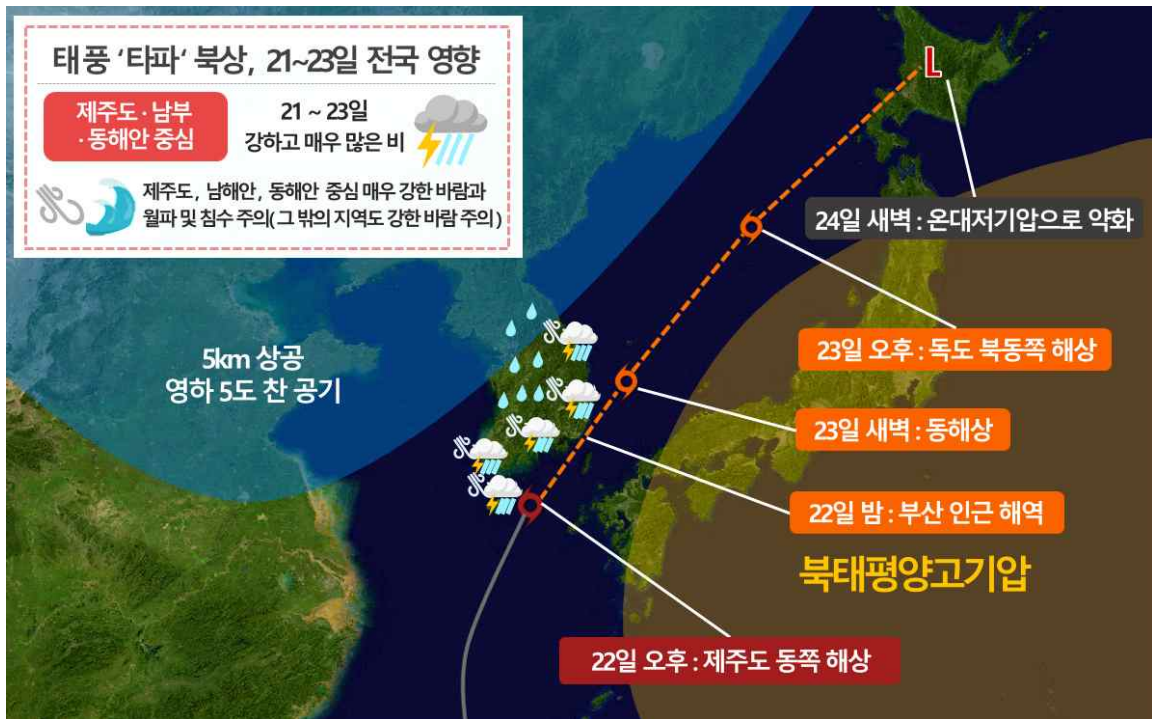


배포일시	2019. 9. 20.(금) 16:00 (총 4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예보국 예보분석팀	담당자	팀장 이경희 주무관 우진규	전화번호	02-2181-0932 02-2181-0936

제17호 태풍 '타파(TAPAH)' 현황과 전망

- 21~23일 제주도 동쪽해상을 지나 경남해안 인근 해역 통과
 - 제주도, 남해안, 지리산 부근, 동해안 중심
시간당 50mm 이상, 최대 400mm 이상 강하고 많은 비, 침수 피해 주의
 - 남해안과 경남동해안 중심, 월파로 인한 침수 및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유의
 - ※ 강한 바람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과 과일 낙과 피해 예방 철저



2019년 9월 22일 오후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

[태풍 현황과 전망]

- (현황) 제17호 태풍 '타파'는 20일(금) 15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380km 부근 해상에서 강도 중(중심기압 980hPa, 최대풍속 시속 104km(초속 29m), 크기 중형(강풍반경 330km)의 세력으로, 시속 2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.

- (예상진로) 앞으로 태풍은 28도 이상의 고수온해역을 통과하면서 점차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하겠고,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 자리를 따라 빠르게 북상하여 22일(일) 오후 제주도 동쪽해상을 지나 22일 밤~23일(월) 새벽에 대한해협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(유의사항) 22~23일에는 태풍이 제주도와 부산을 비롯한 경남해안에 근접해서 해상을 경유하기 때문에, 태풍에 동반된 강하고 많은 비와 월파로 인한 침수피해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
[강수 전망]

-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20일 오후(~18시)부터 비가 오겠고, 21일(토) 오전에 남부지방, 오후에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 되겠고, 22일 아침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며, 23일 낮까지 이어 지겠습니다.
- (1차 태풍전면에서의 강한 비) 태풍이 접근하기 전, 20일 밤~ 21일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와 태풍에 의해 남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,
- (2차 태풍에 동반된 많은 비) 이어서 22~23일 오전에는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강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,
- 제주도와 남해안, 지리산 부근,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총 400mm 이상(제주도산지 600mm 이상)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, 해안가 침수 및 하천 범람, 시설물 피해 등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
*** 예상 강수량(21일~23일)**

- (20일 오후(15시)부터) 제주도: 150~400mm(많은 곳 제주도산지 600mm 이상)
- 강원영동, 경상도, 전남, 울릉도.독도: 100~300mm(많은 곳 경상동해안 400mm 이상)
- 경기남부, 강원영서남부, 충북, 충남남부, 전북, 북한: 30~80mm
(많은 곳 강원영서남부, 충북, 전북 120mm 이상)
- 서울.경기북부, 강원영서북부, 충남북부: 10~40mm

[강풍 및 풍랑 전망]

- (강풍 주의) 20일 밤~23일 오전에는 제주도, 남해안과 동해안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(최대순간풍속 시속 125~160km/초속 35~45m)이 예상되며,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(최대순간풍속 시속 55~110km/초속 15~30m)이 불겠으니, 건물/공사현장 등에서의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, 가을철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및 낙과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.
- (풍랑 주의) 이미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남쪽면바다도 태풍이 점차 북상하면서 20일 밤부터는 바람이 더욱 강해지고 물결도 높아지겠습니다.
- 따라서, 22~23일에 남해와 동해, 제주도 전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10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, 해안가 안전사고 및 양식장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고, 높은 물결이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해안 도로 및 해안 주택가에서는 침수에 대비하기 바랍니다.

[변동성]

- 앞으로 주변 기압계의 상황에 따라 ①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세력을 더욱 확장하거나, ② 태풍의 이동속도가 더욱 느려져 진로가 조금 더 북서쪽으로 치우칠 경우, 태풍이 동쪽으로 전향하는 시기가 늦어져, 경남남해안 부근으로 상륙할 가능성도 있으니,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정보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